

제주도에 성지 순례길 열린다

제주도에 불교 성지 순례길이 만들어진다.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3월부터 성지순례 코스개발팀을 구성해 전통사찰과 문화재 사찰 등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자원을 기반으로 6개코스의 불교성지 순례길을 완성했다고 9월 25일 밝혔다.

제주관광공사는 10월 6일 오전 9시 관음정사 옆 해태동산에서 6개 코스중 지계의 길을 먼저 개장한다. 이어 단계적으로 내년까지 나머지 코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코스 개발은 제주불교신문과 제주도 관광공사가 함께 손잡고 장성수 교수(제주대 관광개발학과), 한금순 강사(근현대 제주불교 박사 학위 취득), 고은경(제주대 지리교육학과) 강사 등 각계 전문가들로 TF팀을 구성해 8개월 동안 심혈을 기울여 온 성과다.

순례길의 이름은 보살이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 해야 할 6가지 수행인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등 육바라밀(六波羅蜜) 수행방법을 지역특색 및 역사적 유래 등을 감안해 만들어졌다.

순례코스의 주요 자원은 관음사, 수정사지, 법화사, 범정사지, 원당사지 등 주요사찰 5곳, 불탑사를 비롯 약천사 등 전통사찰 12곳, 불교문화재 보유사찰 18곳, 템플스테이 3곳, 불교관련 토속신앙 산신기도터 등으로 구성됐다.

보시의 길(33.3km)은 수천년동안 이어온 불법을 세상으로 전하는 길로 극락사에서 시작해 수정사지~장안사~보덕사를 지나 원당사지에서 끝난다. 지계의 길(14.2km)은 선인들이 함께 걸었던 길로 해태동산을 출발, 관음사까지 이어진다.

인욕의 길(21km)은 존자의 수행을 상징하는 길로 관음사를 출발해 천왕사~선녀폭포~영실오백나한~존자암까지 이어진다. 정진의 길(18.6km)은 참 나를 찾아 떠나

- 순례코스...보시, 지계 등
- 6바라밀서 길 명칭 따와
- 10월 6일 관음사에서 첫 개장

는 수행의 길이다. 존자암에서 시작돼 한라산 둘레길을 거쳐 시오름-남국선원-선덕사에 이른다.

선정의 길(39.6km)은 여러석에서 벗어난 지혜의 길로 해탈을 상징한다. 선덕사를 출발해 정방사-봉림사-약천사-광명사로 이어진다. 지혜의 길은 산방굴사와 월계사, 삼광사 등을 지나는 길이나 사찰간 거리가 떨어져 있어 자동차로 이동하는 코시다.



제주도에도 본격적인 성지순례의 길이 열린다. 사진은 10월 6일 첫 개장하는 관음사 정경

제주불교신문측은 “이번 성지순례길은 기원전 2500년 전 부처님의 여섯 번째 제자 발타라 존자의 기원설이 담긴 존자암을 비롯해 수정사지·원당사지·법화사지 등 고려시대 1000년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제주의 사찰 및 유적지와 연계, 성지순례 코스로 체계화해 불교·역사문화를 관광자원화 하는데 있다”며 “이 길은 2천만명의 국내 불자를 비롯해 일본·중국 등 동북아 불자들을 대상으로 제주의 순례길

을 통해 마음치유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제주관광공사 양영근 사장은 “천주교와 기독교 순례길에 이어 제주 고유의 불교역사문화가 접목된 불교성지코스가 선보였다”며 “국내 뿐 아니라 동남아 등 불교문화권에서도 종교성지순례 관광수요가 많은만큼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힐링관광 상품으로 각광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파라미타 전용회관 건립할 것”

파라미타 신임 사무총장 법경 스님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와 유관단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문화회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조계종 대표적 청소년단체인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법경 스님(사진)은 9월 24일 불교계 기자와 가진 간담회에서 향후 계획으로 전용 공간 확보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어린이 청소년 포교를 위한 전용공간 확보라는 과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3년 전 조계사 교육관에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으로 사무실을 이전해 현재까지 더부살이 중이다. 이전 후에도 조계종 측은 퇴거 요청은 꾸준히 있어왔다.

“전용공간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의견만 있을 뿐 실제로 시행된 바는 없습니다. 파라미타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회관 건립은 필요합니다. 저부터 제 활동비를 전부 기부해 파라미타 문화회관 건립에 나서겠습니다.”

회관 건립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급선무. 법경 스님은 향후 5년 간 모금 활동을 전개해 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금 마련을 위한 서화전, 바자회와 CMS 후원 등도 추진한다.

또한 법경 스님은 문화회관이 단순히



5년 간 모금 전개해 회관 건립 재원 마련 단체 자생력 확대 최선

파라미타만을 위한 공간만으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화회관 건립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 포교단체들의 역할을 하나로 집중시켜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문화회관을 건립해 파라미타와 불교청소년단체들이 입주해 함께 활동하게 된다면,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파라미타도 탈북, 소외계층 청소년 등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 가겠습니다.”

신종원 기자 motp79@hyunbul.com

“대회 사상 첫 만점자 輩에서 나왔다”

제4회 나란다축제 수상자 발표

김청강 일병 대상 수상영예

제4회 나란다축제에 참여한 육군 제7포병여단 661포병대대 소속 김청강 일병이 대회 사상 첫 만점을 기록, 군장병부문 대상수상자로 확정됐다. 김청강 일병에게는 조계종 총무원장상과 포상휴가, 장학금 50만원이 지원되며, 소속 포대에는 격려금이 별도로 지원될 예정이다.

재단법인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스님)은 9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4회 나란다축제 중·고등·군장병 부문 등 개인상과 단체상, 특별상 수상자를 각각 발표했다.

중등부문과 고등부문은 경포여자중학교 2학년 장재선 학생(강원파라미타연합회)과 대구 윤암고등학교 2학년 박진경 학생(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칠곡도량)이 각각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중등부와 고등부 대상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장학금 200만원, 3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단체상 대상은 강원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가 차지했으며, 현장에서 결과가 발표

된 초등부와 일반부는 오남초등학교 5학년 양윤성 학생(봉선사 어린이법회)과 조계사불교대학팀(이정애·전선호·전홍연)이 각각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단체상은 군장병 부문에 참가한 부대 2곳과 사찰 4곳, 응시율 등에서 앞선 종립학교 2곳 등 총 9곳을 선정했다. 대상 단체로 선정된 강원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는 종립학교가 설립된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년 높은 참가율과 응시율을 기록했으며, 참가학생들의 평균 점수 또한 높아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총 9명이 접수한 특별상의 경우 문화재지킴이 활동, 환경지킴이, 자원봉사 활동 등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심사기준에 부합한 3명만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10월 13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거행된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제11회 은정장학·학술연구지원, 생활격려금 증서수여식’이 함께 진행된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대불청 “도심사찰서 키르기 교육”

조계사 봉은사 진관사서 10월 6일부터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우식)는 10월 6일부터 11월까지 도심사찰에서 ‘아동 키르기’ 체육교실을 개최한다. 체육활동이 부족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기획된 이 프로그램은 조계사, 봉은사, 진관사에서 각각 40명으로 나눠 총 1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전문교사의 지도로 성장판을 자극해 키 성장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물론 비만도를 확인하는 ‘체

질량지수(BMI)’ 검사도 별도로 진행한다. 지도교사로는 정전철 한국유아체육지도자협회 교육이사, 현일환 한국선수트레이너 협회 이사, 최윤성 연성대 육아재활 특수학과 교수, 전완기 태화복지관 사회체육팀 전임강사 등이 참여한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공모에 당선돼 마련된 이번 행사의 참가 신청은 대한불교청년회(www.kyba.org)에서 하면 된다.

정혜숙 기자

강정마을 어르신 법륜스님이 위로

평화재단 강정마을 경로잔치

평화재단(이사장 법륜스님)이 한가위를 맞아 10월 1일 제주도 강정마을 경로잔치를 열었다. 이 행사는 법륜스님이 주민들을 위한 ‘위로와 화합이 말씀’을 전하고, 방승인 김제동씨의 토크콘서트도 진행됐다. 또 푸름브라더스, 제주민요패 ‘소리앗’, 가수 김미린씨, 강정마을 민속보존회

와 제주민요패의 풍물패 등이 문화 행사를 마련했다.

평화재단은 “제주도의 아름답고 소박한 강정마을이 정부의 해군기지 건설이 시작되면서 분열이 일어났다”며 “그동안 지쳤던 마음, 분노했던 마음, 미워하고 원망했던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했다”고 취지를 전했다.

정혜숙 기자

카이스트 유학생 템플스테이 체험

국제포교사회 주관 범주사서 진행

국제포교사회(회장 배광식)가 카이스트 유학생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실시했다. 조계종 국제포교사회가 주관하고 대전충청전법단이 후원한 ‘대전충청지역 청년 불교문화 국제교류 템플스테이’가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1박2일 동안 속리산 범주사에서 개최됐다.

카이스트에 재학중인 스웨덴과 파키스탄, 프랑스, 카자흐스탄, 미국 등 15개국의 유학생 34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한국의 불교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이번 템플스테이에서는 새벽예불, 범주사 탐방, 사찰음식체험, 그릇미션(인생이 즐거우냐? 고통스러운냐? 불교문화를 접한 소감 등), 108배, 참선, 스님과의 차담 시간 등이 진행됐다.

국제포교사회는 “KAIST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전·충청 국제포교사와 대전충청전법단이 템플스테이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학적, 합리적 사고를 가진 한국과학기술인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불교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통해 한국불교 세계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



카이스트 유학생 템플스테이가 9월 22일 진행됐다.

불교문화 체험의 장 마련 미국 등 15개국 유학생 참여

”고 취지를 말했다.

대학생들과 함께 포행을 진행한 범주사주지 현조스님은 “한국불교문화체험을 통해 각자의 성품, 잠재력을 개발하여 더욱 풍부한 삶을 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으로 대전충청지역 국제포교사와 대전충청전법단 네트워크는 외국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불교문화를 알리는 템플스테이를 지속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한국불교태고종 종정을 역임하신 불이성 법륜사 종창주

덕암 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 대법회

- 1. 차례제 : 불기2556년 10월 12일(금) 오전 11시 30분
- 2. 보살계 입재일 : 10월 8일(월) 오전 10시
- 회향일 : 10월 12일(금) 오전 10시 ~ 오전 11시 30분
- 3. 덕암큰스님 사리청경 : 10월 8일 ~ 12일
- 4. 세미나 : 10월 8일 14시부터 ~ 17시(3시간)
- 5. 덕암큰스님 유물전시회 : 10월 8일 ~ 12일
- 6. 처예전시회 : 10월 8일 ~ 12일
- 7. 사진전시회 : 10월 8일 ~ 12일

- 장소 : 불이성법륜사 3층 대불보전
- 장소 : 불이성법륜사 3층 대불보전
- 장소 : 불이성법륜사 3층 대불보전
- 장소 : 불이성법륜사 3층 대불보전
- 장소 : 전승관 1층 대회의실
- 장소 : 불이성법륜사 종무소
- 장소 : 전승관내
- 장소 : 전승관내

◆주최 :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 덕암큰스님탄신100주년기념대법회추진위원회

◆주관 : 덕암화상문도회, 불이성법륜사

◆후원 : (사)대륜불교문화원, (사)한국불교문화예술사연구회, 대륜화상문도회, 한국불교신문, 불교TV, BBS불교방송, 각시도교구총무원,

선암사, 봉원사, 백련사, 청련사, 한국불교태고종 연화비구니회, 한국불교태고종 전법사회, 한국불교태고종 전국신도회, 불이성법륜사신도회

◆문의 :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 총무부(김지미주임) 02) 739-3450~4 불이성법륜사 종무소 02) 732-2710, 3920